

#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7권 1호 (2014년 3월)



###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 목 차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 성별, 의도적 통제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의 차이 ..... 강현경 · 박영신

다양한 인종의 얼굴표정에 대한 정서인식: 초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의 비교 ..... 최현숙 · 김혜리 · 엄진섭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 조현정 · 이승연

착한 거짓말과 나쁜 참말? 5-6세 아동의 상황에 따른 거짓말과 참말 이해 ..... 송미리 · 송현주

아동의 의사소통 조망수용, 틀린믿음, 억제통제의 발달 ..... 정미옥 · 이현진

한국 아동의 실행기능 발달과 수학능력의 관련성: 측정과 그래프 이해를 중심으로 ..... 맹세호 · 정윤경 · 권미경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인지척도 예비 연구 ..... 오수경 · 방희정 · 이순행

계열적 수행의 연령차와 인출 단서의 효과 ..... 김신혜 · 진영선

아동기 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성인 애착의 관계: 자기 존중감과 타인 신뢰의 매개 효과 ..... 한기백

한국 3세 아동의 충칭성 이해 ..... 방지은 · 최영은

한국발달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지

## 발 달

제 27 권 제 1 호 / 2014. 3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 성별, 의도적 통제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의 차이 .....	강현경 · 박영신 / 1
다양한 인종의 얼굴표정에 대한 정서인식: 초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의 비교 .....	최현숙 · 김혜리 · 엄진섭 / 19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	조현정 · 이승연 / 33
착한 거짓말과 나쁜 참말? 5-6세 아동의 상황에 따른 거짓말과 참말 이해 .....	송미리 · 송현주 / 55
아동의 의사소통 조망수용, 틀린믿음, 억제통제의 발달 .....	정미옥 · 이현진 / 73
한국 아동의 실행기능 발달과 수학능력의 관련성: 측정과 그래프 이해를 중심으로 .....	맹세호 · 정윤경 · 권미경 / 95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인지척도 예비 연구 .....	오수경 · 방희정 · 이순행 / 117
계열적 수행의 연령차와 인출 단서의 효과 .....	김신혜 · 진영선 / 141
아동기 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성인 애착의 관계: 자기 존중감과 타인 신뢰의 매개 효과 .....	한기백 / 159
한국 3세 아동의 충칭성 이해 .....	방지은 · 최영은 / 179

한국발달심리학회

## 착한 거짓말과 나쁜 참말? 5-6세 아동의 상황에 따른 거짓말과 참말 이해\*

송 미 리

송 현 주<sup>†</sup>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5-6세 아동이 거짓말 및 참말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화자의 정서를 추론할 때 상황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참가 아동은 주인공이 규범을 위반한 상황(친구의 크레파스를 몰래 가져간 상황 등)이나 예의가 요구되는 상황(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등)에서 거짓말 혹은 참말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대답하였다. 도덕적 평가의 경우 아동들은 규범 위반 상황보다 예의 요구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화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아동의 부모들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정서 추론의 경우 아동들은 화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부모들은 화자가 참말을 했을 때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아동은 예의 요구 상황보다 규범 위반 상황에서 참말을 한 경우에 화자가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하였으며, 부모의 경우 규범 위반 상황보다 예의 요구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5-6세 아동이 선의의 거짓말과 일반적인 거짓말의 차이를 이해하며, 도덕적 평가 역시 상황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어 :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도덕적 평가, 정서 추론

\* 실험을 도와준 연세대학교 발달연구실 연구원들과 학부생 연구 조교, 연구에 협조해주신 부모님 및 참가 아동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3-A2033375).

<sup>†</sup> 교신저자: 송현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746)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E-mail: hsong@yonsei.ac.kr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존재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본다면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거짓이 아닌 사실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우호적인 태도로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다(Grice, 1989; Lakoff, 1973; Talwar & Crossman, 2011에서 재인용). 대개는 두 가지 원칙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때때로 두 원칙 중 한 가지를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다른 사람에게 받은 선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음에 들어?'라고 물어보는 상대의 말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또는 다른 사람이 새로 구매한 물건이 예쁘거나 멋지지 않아 보인다면, '이거 어때?'라고 묻는 상대의 질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위의 상황들은 '거짓말은 옳지 않으므로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는 생각과 '타인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라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만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떠한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성인들은 대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여 '마음에 꼭 든다', 혹은 '정말 예쁘다'처럼 진심과 다른 말을 하곤 한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사실적 정보를 주는 것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진짜 생각과 반대되는 말을 할 때 이것을 '선의의 거짓말', 혹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부른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숨기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개인적

이익을 얻는 것 등의 목적을 지닌 '반사회적(antisocial)' 거짓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친사회적(prosocial)' 거짓말이라고 일컫기도 한다(Talwar & Crossman, 2011).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불순한 의도를 지닌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거짓말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고 사회적 관습에 의해 용납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반사회적 거짓말에 비해 덜 부정적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 유효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Nyberg, 1993; Talwar & Crossman, 2011에서 재인용; Sweetser, 1987).

선의의 거짓말은 반사회적 거짓말에 비해 더 늦게 출현하고 사용 빈도가 더 낮기는 하지만(Talwar & Crossman, 2011), 학령 전기에 이미 이러한 거짓말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코에 립스틱이 묻은 것을 모르고 있는 실험자가 사진에 찍히기 전에 아동에게 '내 얼굴 괜찮아 보이니?(Do I look okay?)'라고 물어보자 3세 아동도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Talwar & Lee, 2002b).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는 상황(undesirable gift paradigm)에서도 3-11세 아이들 대부분이 선물이 마음에 든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반응을 보였다(Talwar, Murphy, & Lee, 2007). 이는 아동이 더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고 싶은 개인적 소망과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잘 조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반응은 학령기가 되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이유도 점점 더 친사회적인 측면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인다(Xu, Bao, Fu, Talwar, & Lee, 2010).

이와 같이 학령 전기 아동이 선의의 거짓말을 산출할 수 있음을 보이는 일관된 증거가 있는 반면, 학령 전기 아동이 선의의 거짓말

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이는 증거는 일관되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학령기 아동들이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다른 도덕적 판단을 보임이 나타나지만(e.g., Heyman, Sweet, & Lee, 2009), 6세 이하 아동들의 경우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가 미성숙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연구에서는 Bussey(1999)가 4세 아동들에게서 선의의 거짓말과 반사회적 거짓말을 구분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능력이 8, 11세 아동보다는 미성숙하며, 선의의 거짓말을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음을 보였다.

한국 아동에 대한 자료들은 해외 문헌에서 밝혀진 것보다도 더 늦은 시기에 선의의 거짓말과 다른 거짓말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먼저 거짓말 유형에 따른 아동의 도덕적 평가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6세, 8세, 10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박영아, 2008)에 의하면, 8세와 10세 아동은 반사회적 거짓말보다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더 긍정적인 도덕적 판단을 내렸으나 6세 아동의 경우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둘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권은영과 이현진(2012)에서도 6세 이하 아동의 경우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 능력이 결여됨을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성인 및 7세 아동과는 달리, 5세와 6세는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들은 거짓말이 화자 자신에게 어떤 정서적 영향을 준다고 이해할까? 박영아(2008)의 연구에서는 전 연령(6세, 8세, 10세)의 아동이 선의의 거짓말보다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느낄 것이라고 하였다. 긍정적 정서 예측의 경우 10세 아동은 반사회적 거짓말보다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보고한 반면, 6세와 8세 아동은 화자가 선의의 거짓말과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비슷하게 느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권은영과 이현진(2012)의 연구에서는 성인들만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긍정적 정서를,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부정적 정서를 추론하였고, 아동들은 이와 같은 추론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5세와 6세 아동은 주인공이 거짓말을 한 후 많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7세 아동은 어떤 유형의 거짓말이든 주인공이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거짓말을 한 화자의 정서를 추론하는 능력이 7세에도 완전하지 않음을 보인다.

위에서 개관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선의의 거짓말을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3세 경에도 나타나지만,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 도덕적 평가 및 정서 반응 추론 능력이 6세 이하의 아동에게서 나타나는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 및 거짓말로 인한 정서적 결과에 대한 평가 측정 방법을 좀 더 쉽게 변형한다면 6세 이하의 아동들도 기존에 밝혀진 것보다 더 성숙한 선의의 거짓말 이해 능력을 보이는지 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평가 과제의 경우 6개의 별 또는 점 선택지 -금색 별 3개(아주 잘 했다), 금색 별 2개(다소 잘 했다), 금색 별 1개(약간

잘 했다), 검은색 점 1개(약간 잘못했다), 검은색 점 2개(다소 잘못했다), 검은색 점 3개(아주 잘못했다)-중에 고르게 하거나(Bussey, 1999), 다섯 개의 표정-찡그리고 우는 얼굴(많이 잘못했다), 약간 찡그린 얼굴(조금 잘못했다), 무표정한 얼굴(보통이다), 약간 밝은 얼굴(조금 잘했다), 아주 밝게 웃는 얼굴(많이 잘했다)-그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권은영, 이현진, 2012).

거짓말을 한 주인공이 느낀 기분을 추론하는 과제에서는 죄책감이나 기쁨 등의 감정을 얼마나 느꼈을지 길이가 각각 다른(0, 6cm, 12cm, 18cm) 막대를 사용하여 나타내도록 하였다(Bussey, 1999; 권은영, 이현진, 2012).

이러한 측정 도구의 특징들은 학령 전기 아동에게 과제의 난이도를 증가시켰을 수 있다. 우선 상징물에 대한 이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별과 점 또는 다양한 얼굴 표정들이 도덕적 가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상징하는지, 그리고 길이가 다른 막대들이 정서적 경험의 정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상징하는지 이해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징물의 사용은 과제 해결에 필요한 인지적 처리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옳다/그르다' 또는 '기분이 좋다/나쁘다' 등의 단순한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4-6개의 연속선 상에서 정도가 다른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학령 전기 아동에게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지의 수를 줄이고, 도덕적 평가나 정서적 반응에 대해 좀 더 직접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선택지를 사용함으로써 과제의 난이도를 쉽게 만들고자 하였다. 우선, 도덕적 평가 과제에서는 단순하게 'OO

(주인공)는 착한 아이야 나쁜 아이야?'라는 질문을 하였다. 즉, 선택지의 수가 2개 밖에 없었고, 시각적 상징을 사용하는 대신에 5-6세 아동이면 이해할 수 있으며 도덕적 판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주인공의 정서 반응을 추론하도록 질문하는 부분에서는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막대들이 아닌,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표정 그림(☺, ☹, 😐)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이렇게 아동이 연구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데 사용되는 척도를 더욱 단순화 하고, 질문의 의미와 더욱 직접적으로 연결되게끔 하였을 때,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것 보다 더 어린 연령대에서도 참말 및 거짓말을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실험에는 5세 아동 16명(평균 연령: 65.6개월, 연령 범위: 61.0-70.3개월, 남아 7명)과 6세 아동 16명(평균 연령: 78.2개월, 연령 범위: 72.5-84.8개월, 남아 8명), 총 32명이 참가하였다. 추가로 12명의 아동(5세 8명, 6세 4명)이 본 실험에 참가하였으나 질문에 대한 무응답(5명) 또는 이야기 이해 질문에 대한 오답(7명)을 보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연구 참가 아동은 서울 및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육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여 모집하였다.

실험자극

참가 아동들은 두 명의 인물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가 끝난 후 실험자가 제시하는 질문에 대답하였다. 아동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각 이야기의 상황에 대한 그림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보여주면서 실험자가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각 아동은 이야기 상황의 종류(규범 위반, 예의 요구)와 주인공 진술의 진위 여부(참말, 거짓말)에 따라 달라지는 4가지 유형의 이야기를 들었고, 각 유형에는 각기 다른 이야기가 두 개씩 포함되어 총 8개의 이야기를 들었다. 각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동이었고, 규범 위반 조건의 이야기에는 엄마가 자기 전에 이를 닦으라고 하셨는데 주인공 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이를 닦지 않은 상황, 아빠가 밥 먹기 전에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은 상황, 친구의 크레파스 하나를 몰래 자기 주머니에 넣은 상황, 선생님이 초콜릿을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하셨는데 혼자 먹은 상황 등이 있었다. 예의 요구 조건의 이야기에는 선생님이 주인공에게 인형을 선물해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 아빠가 가방을 사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 친구의 새 운동화가 멋있지 않다고 생각한 상황, 엄마의 새 모자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한 상황 등이 있었다. 각각의 이야기는 선행 연구(권은영, 이현진, 2012; Bussey, 1999; Happé, 1994)에서 사용된 이야기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것들이었다. 각 상황에 해당하는 이야기의 예시와 그림(그림 1, 그림 2)은 다음과 같다.

**규범 위반 상황**

“여기 인성이랑 인성이 친구 재은이가 나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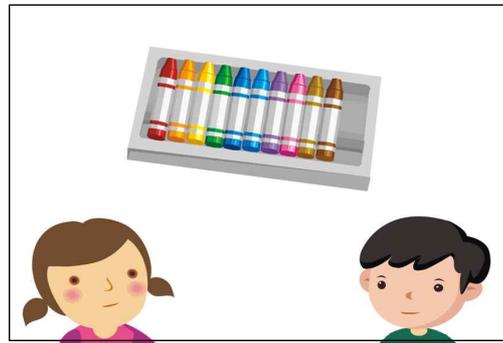


그림 1. 규범 위반 상황에 사용한 그림 예시



그림 2. 예의 요구 상황에 사용한 그림 예시

네. 재은이가 크레파스를 가져왔는데, 인성이가 재은이 크레파스 하나를 몰래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 나중에 재은이가 인성이한테 ‘인성이야, 내 크레파스 너한테 있어?’라고 물어봤는데, 인성이가 ‘응, 나한테 있어.’(참말 조건)/ ‘아니, 나한테 없어.’(거짓말 조건)라고 말했어.”

**예의 요구 상황**

“여기 민지랑 아빠가 나왔네. 아빠가 민지 주려고 가방을 새로 사오셨는데 민지는 그 가방이 마음에 안 들었어. 아빠가 민지한테 ‘민지야, 가방 마음에 드니?’라고 물어보셨는데, 민지가 ‘아니요, 마음에 안 들어요.’(참말 조건)/ ‘네, 마음에 들어요.’(거짓말 조건)라고 말했어.”

절차

실험은 서울 소재 모 대학교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보호자는 실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실험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아동이 실험실 환경 및 실험자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대기실에서 10분가량 놀이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진 후에 아동은 실험자와 함께 독립된 공간에 들어가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자와 아동은 컴퓨터 모니터가 놓인 탁자 앞에 나란히 앉았다. 먼저 실험자는 아동에게 실험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주고, 정서 추론 질문에서 쓰이는 표정 그림(☺, ☹, 😐)에 대해 아동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실험자가 아동에게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질문을 하였다.

한 아동에게 총 8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이야기 순서는 참가자 간에 역균형화되었다. 한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실험자는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네 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다.

- (1) “OO(주인공)가 △△(상대방)한테 뭐라고 말했어?”(내용 이해)
- (2) “OO가 ~(주인공 진술 내용)라고 말했는데, OO는 착한 아이야 나쁜 아이야?”(도덕적 평가)
- (3) “OO가 ~라고 말했는데, 그 때 OO는 기분이 어땠을까?”(정서 추론)
- (4) “OO가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진짜야, 거짓말이야?”(진위 여부 이해)

점수화

각 이야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점수화 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이야기 내용 이해.**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정답을 말하면 1점, 틀린 답을 말하면 0점을 부여하였다. 내용 이해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제시되었고, 아동이 실험 상황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내용 이해 질문에서 한 번이라도 오답을 말한 경우 자료 분석에서 제외되었다(12명).

각 조건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두 개씩이었으므로 아동들은 각 조건에서 최소 0점에서 최대 2점을 받을 수 있었다.

**참말 및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평가.** 상대방에게 참말 또는 거짓말을 한 것에 근거하여 주인공이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평가하게 하였을 때 착한 아이라고 대답하면 1점, 나쁜 아이라고 대답하면 0점을 부여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역시 4가지 조건 각각에 대해 최소 0점에서 최대 2점이었다.

**참말 및 거짓말에 대한 정서 추론.** 상대방에게 한 말에 대하여 주인공 자신이 어떤 기분을 느낄 것 같은지 예측하게 하였을 때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대답하면(☺ 그림을 선택하면) 1점, 보통일 것이라고 대답하면(☹ 그림을 선택하면) 0점, 기분이 나쁜 것이라고 대답하면(😐 그림을 선택하면) -1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4가지 조건 각각에 대해 최소 -2점부터 최대 2점까지였다.

**진위 여부 이해.**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한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정답을 말하면 1점, 틀린 답을 말하면 0점을 부여하였다. 역시 4가지 조건 각각에 대해 0점에서 최대 2점까지 받을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저자 중 한 명이 모든 참가 아동의 반응을 점수화하였고, 아동이 각 시행에서 어떤 조건에 할당되었는지에 대해 모르는 다른 연구보조자가 아동의 자료 중 25%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반응을 점수화하였다. 두 명 간에 점수화 결과의 일치도는 100%였다.

### 결 과

이야기 내용 이해 질문에 대해 여덟 번 모두 정답을 말한 경우만 자료 분석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내용 이해 반응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 외의 종속 측정치(진위 여부 이해, 도덕적 평가, 정서 추론)에 대한 예비 분석 결과, 성별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변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F_3 < 3.46$ ,  $p > .08$ ).

#### 주인공 진술의 진위 여부 이해

진위 여부 이해 질문은 각 상황에서 이야기 주인공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고, 아동들이 보인 반응은 그림 3과 같다.

먼저, 이야기 상황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F(1, 30) = 11.50$ ,  $p < .01$ ), 이러한 결과는 전체 아동에 있어서 예의 요구 상황( $M = 1.58$ ,  $SD = .69$ )에서보다 규범 위반 상황( $M = 1.83$ ,  $SD = .42$ )에서 주인공이 한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더 정확하게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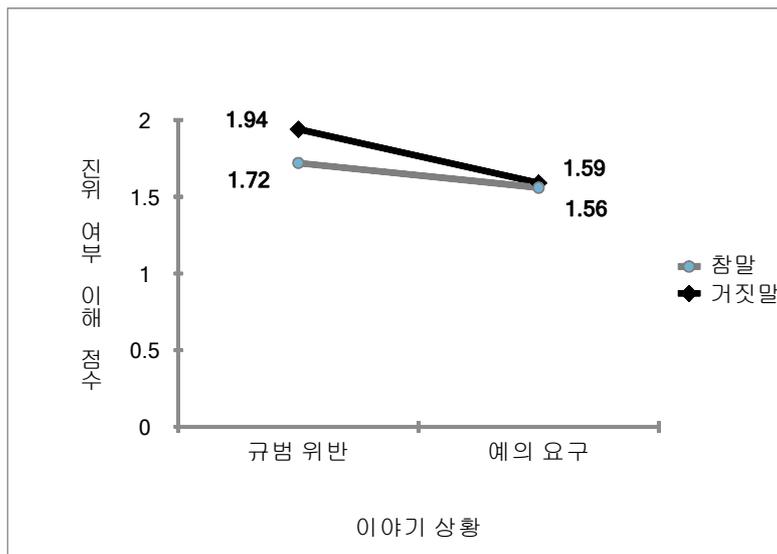


그림 3. 주인공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한 아동의 이해

데( $F(1, 30) = 6.90, p < .05$ ), 6세 아동들이 5세 아동보다 주인공 말의 진위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였음을 의미한다(6세:  $M = 1.85, SD = .36$ ; 5세:  $M = 1.53, SD = .72$ ).

이야기 상황과 연령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였다( $F(1, 30) = 4.49, p < .05$ ). 사후분석 결과 5세의 경우 규범 위반 상황보다 예의 요구 상황에서의 참말 및 거짓말에 대한 이해 수준이 더 낮았다( $t(124) = -2.98, p < .01$ ). 6세 아동은 주인공의 참말 및 거짓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규범 위반 상황과 예의 요구 상황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24) = -.69, p = .49$ ).

진위 여부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F(1, 30) = 1.58, p = .22$ ), 진위 여부와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30) < 1.11, p > .30$ ).

#### 주인공의 진술에 대한 도덕적 평가

이야기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한 말에 대해

여 도덕적으로 평가해보도록 하였을 때 아동이 보인 반응은 그림 4와 같다. 분석 결과 연령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서( $F < 1.00, p = .66$ ) 아래에는 5세와 6세 아동의 결과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우선 이야기 상황의 주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F(1, 31) = 18.27, p = .00$ ), 규범 위반 상황( $M = .58, SD = .75$ )보다 예의 요구 상황( $M = 1.06, SD = .87$ )에서의 참말 혹은 거짓말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진위 여부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31) = 3.99, p = .06$ ).

또한 이야기 상황과 진술의 진위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F(1, 31) = 14.89, p < .01$ ). 사후 분석 결과 규범 위반 상황의 경우, 주인공이 거짓말을 했을 때보다 참말을 했을 때 더 착하다고 평가하였지만( $t(124) = 4.06, p = .00$ ), 예의 요구 상황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t(124) = -.65, p = .52$ ). 거짓말의 경우 예의 요구 상황에서의 거짓말이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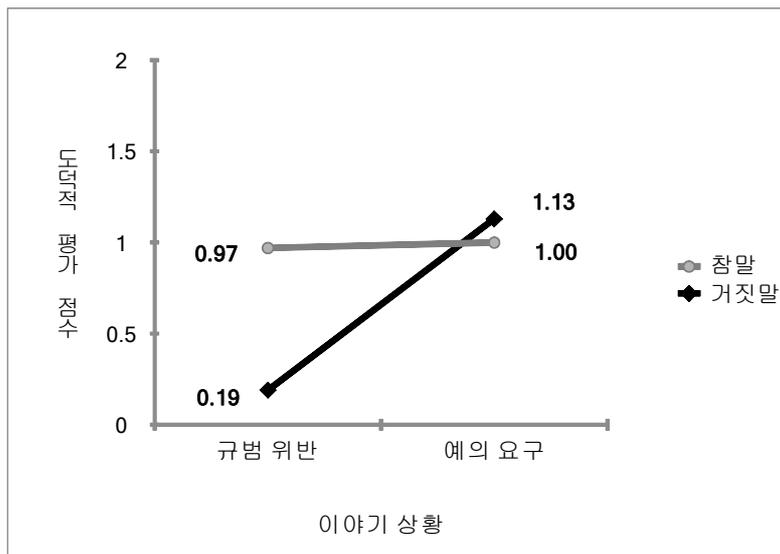


그림 4. 주인공의 진술에 대한 아동의 도덕적 평가

범 위반 상황에서의 거짓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t(124) = 4.88, p = .00$ ), 참말의 경우는 두 상황 간의 차이가 없었다( $t(124) = .16, p = .87$ ).

주인공의 정서 추론

주인공이 참말 또는 거짓말을 한 후 어떤 정서를 느낄지 추론하게 한 결과 5-6세 아동이 보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그림 5). 아동의 주인공 정서 예측 반응에 대한 분석에서도 연령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서( $F < 1.00, p = .44$ ), 연령 변인이 제외된 분석이 아래에 보고되었다.

이야기 상황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F(1, 31) = .54, p = .47$ ), 진위 여부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F(1, 31) = 11.42, p < .01$ ), 주인공이 참말을 한 경우( $M = .05, SD = 1.09$ )보다 거짓말을 한 경우( $M = .75, SD = 1.23$ )에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추론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야기 상황과 진위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31) = 5.48, p < .05$ ). 사후 분석 결과 예의 요구 상황의 경우, 선의의 거짓말을 했을 때보다 주인공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했을 때 더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t(124) = -2.07, p < .05$ ), 규범 위반 상황에서는 거짓말과 참말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124) = 1.09, p = .28$ ). 거짓말의 경우 두 상황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t(124) = -.87, p = .39$ ), 참말의 경우 규범 위반 상황에서 참말을 했을 때보다 예의 요구 상황에서 참말을 했을 때 더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t(124) = -4.03, p = .00$ ). 즉, 자신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느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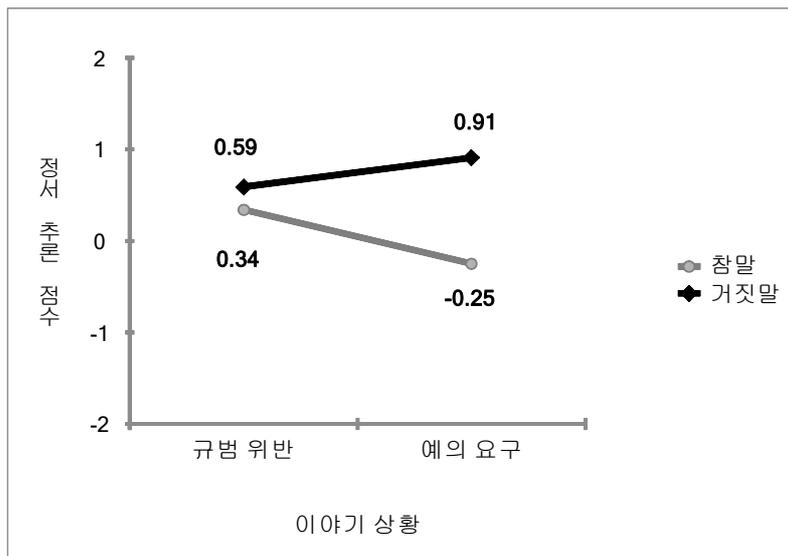


그림 5. 주인공의 정서에 대한 아동의 추론

부모의 자료

아동의 자료 해석 시 발달적 준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유사한 과제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였다. 부모의 경우 아동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서면에 옮겨놓은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응답하는 동안 이야기 내용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용 이해 질문과 진위 여부 이해 질문은 제외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질문은 두 가지로 (1) 화자의 진술에 대한 도덕적 평가(1점: 매우 잘못했다, 7점: 매우 잘했다), (2) 화자의 정서 추론(1점: 매우 나쁘다, 7점: 매우 좋다)에 관한 것이었으며 모두 7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아동이 실험실에서 실험에 참가하는 동안 대기실에서 이루어졌다. 결과 분석에는 아동의 보호자 총 35명(어머니 34명, 아버지 1명)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참말 및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평가.** 주인공 진술에 대한 부모들의 도덕적 평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6).

우선 상황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F(1, 34) = 17.85, p = .00$ ), 규범 위반 상황( $M = 3.69, SD = 2.03$ )보다 예의 요구 상황( $M = 4.41, SD = 1.14$ )에서의 참말 및 거짓말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위 여부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F(1, 34) = 44.03, p = .00$ ), 참말을 한 경우( $M = 4.77, SD = 1.39$ )를 거짓말을 한 경우( $M = 3.33, SD = 1.64$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뜻한다.

다음으로, 이야기 상황과 진위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34) = 93.08, p = .00$ ). 규범 위반 상황에서는 참말을 한 경우를 거짓말을 한 경우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t(136) = 12.71, p = .00$ ), 예의 요구 상황에서는 참말이나 거짓말을 한 주인공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유의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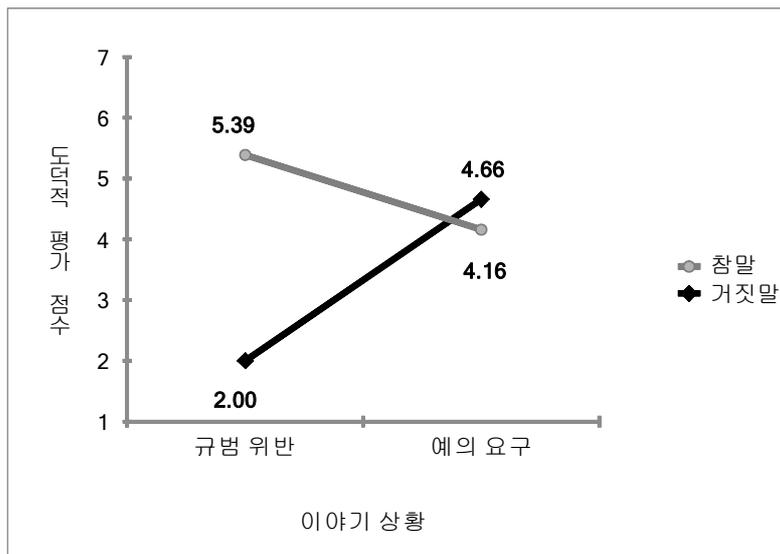


그림 6. 주인공의 진술에 대한 부모의 도덕적 평가

지 않았다( $t(136) = -1.88, p = .06$ ). 또한 참말의 경우 예의 요구 상황보다 규범 위반 상황에서 참말을 했을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t(136) = -4.61, p = .00$ ), 거짓말의 경우 규범 위반 상황에서보다 예의 요구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136) = 9.98, p = .00$ ).

**참말 및 거짓말에 대한 정서 추론.** 이야기 주인공의 정서에 대하여 부모들이 추론한 것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7).

먼저, 이야기 상황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F(1, 34) = 33.10, p = .00$ ), 규범 위반 상황( $M = 3.07, SD = 1.16$ )보다 예의 요구 상황( $M = 3.76, SD = 1.01$ )에서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예측하였음을 뜻한다.

또한 진위 여부의 주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F(1, 34) = 5.99, p < .05$ ), 주인공이 거짓말을 한 경우( $M = 3.19, SD = 1.31$ )보다 참말을 한 경우( $M = 3.64, SD = .89$ )에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으로 예측하였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상황과 진위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F(1, 34) = 32.06, p = .00$ ), 예의 요구 상황에서 참말을 한 경우보다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경우에 더 긍정적인 정서를 추론하고( $t(136) = -2.32, p < .05$ ), 규범 위반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한 경우보다 참말을 한 경우 더 긍정적인 정서를 추론함을 보였다( $t(136) = 6.29, p = .00$ ). 참말을 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t(136) = -1.26, p = .21$ ), 거짓말의 경우에는 규범 위반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보다 예의 요구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t(136) = 7.36, p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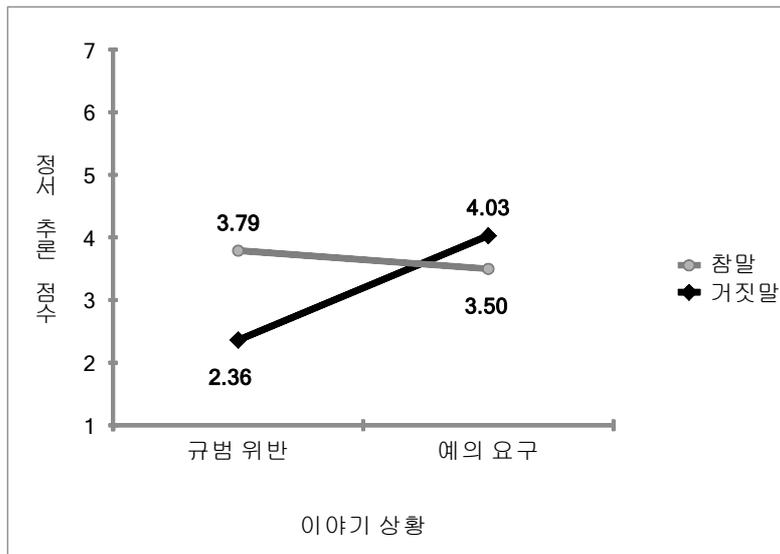


그림 7. 주인공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추론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상황에서의 참말 및 거짓말의 이해가 달라지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우선 참말과 거짓말을 잘 구분하는지 알아보는 진위 여부 이해 질문에서는 5-6세 아동들이 예의 요구 상황보다 규범 위반 상황에서 주인공 진술의 진위 여부를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성은 5세 아동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4-7세 아동의 경우 반사회적 거짓말보다는 선의의 거짓말 이해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도 부합된다(권은영, 이현진, 2012; 박영아, 2008; Bussey, 1999).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아동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헤아려야 하는 상황보다 규범을 위반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솔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상황을 더 자주 접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해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참말 및 거짓말을 한 화자에 대한 도덕성 평가와 정서 추론에 대해서는 아동의 자료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아동의 부모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부모들은 참말과 거짓말의 도덕적 가치나 정서적 결과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규범 위반 상황에서는 거짓말보다 참말을 한 경우를 더 도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예의 요구 상황에서는 참말을 한 경우와 거짓말을 한 경우를 비슷하게 평가하였다. 참말 간 비교에서는 규범 위반 상황에서 참말을 한 것이 예의 규범 상황에서 참말을 한 것보다 더 도덕적이며, 거짓말의 경우에는 예의 규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규범 위반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것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정서 추론의 경우, 규범 위반 상황에서는 화자가 거짓말을 한 경우보다 참말을 한 경우에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지만, 예의 요구 상황에서는 참말을 한 경우보다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경우에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참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른 정서적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거짓말의 경우 규범 위반 상황보다 예의 규범 상황에서 더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였다.

부모들과 유사하게 5-6세 아동들의 참말 및 거짓말을 한 화자에 대한 도덕성 평가 및 정서 추론 분석에서도 상황과 진술의 진위 여부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했고, 이는 아동들도 상황에 따라 참말과 거짓말의 평가를 다르게 하였음을 의미한다. 아동들도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규범 위반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때보다 참말을 하는 경우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거짓말 조건 간의 비교에서는 예의 요구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규범 위반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평가함을 보였다. 정서 추론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아동과 부모 모두 예의 요구 상황에서 참말을 한 경우보다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경우에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6세 이하의 아동들이 선의의 거짓말과 다른 거짓말 간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 결과(권은영, 이현진, 2012; 박영아, 2008)와 대조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의 5-6세 아동도 참말 혹은 거짓말을 한 주인공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때, 단순히 주인공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술한 주인공의 의도 및 정서를 추론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5세의 경우 주인공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이해 능력이 6세보다 낮았으나 도덕적 평가 및 정서 추론 반응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4, 8, 11세를 대상으로 했던 Bussey(1999)의 연구에서 4세 아동이 보인 결과와 유사하다. 이 연구에 참여한 4세 아동은 주인공의 진술에 대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연령이 더 높은 아동보다 정답률이 낮았다. 그러나 참된 진술 및 거짓 진술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과제에서는 연령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4-5세 아동은 나이가 더 많은 아동들보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인지 능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상황을 고려하면서 참말 및 거짓말의 도덕적 측면을 평가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나이가 더 많은 아동의 능력과 질적인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 추론 반응 분석에서는 아동과 부모 간에 차이가 있는 결과가 몇 가지 존재했다. 가장 확연한 차이는 진위 여부 변인의 주효과의 방향이었다. 부모들은 화자가 참말을 한 경우에 거짓말을 했을 때보다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으로 예측했지만, 아동들은 주인공이 거짓말을 한 경우에 참말을 했을 때보다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권은영과 이현진(2012)의 연구에서 5세와 6세 아동이 보인 반응과 유사한 것이지만,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하여 부정적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예측하였던 Bussey(1999), 박영아(2008)의 결과와는 대비되는 것이다.

부모들의 자료에서 참말을 한 화자가 느끼

는 정서에 대하여 규범 위반 상황, 예의 요구 상황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의외의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 추론과 관련하여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얻지 못했으므로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의 요구 상황에서의 참말이 가지는 순기능 때문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했던 몇몇 부모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솔직하게 말해야 마음에 드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특히 부모님에게는 자신의 솔직한 선호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대방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길이라고도 하였다. 이처럼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상대를 돕는 일이라고 여길 경우 긍정적 정서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예의 요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사실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신하게 되는데(Lakoff, 1973; Talwar & Crossman, 2011에서 재인용; Lee, & Ross, 1997; Sweetser, 1987),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원칙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이 보인 반응처럼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고자 하며, 반대로 심리적 거리가 멀수록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고자 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아동의 경우 주인공이 반사회적 거짓말을 한 후에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추론한 결과는 ‘행복한 위반자 현상(happy victimizer phenomenon)’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권은영, 이현진, 2012). ‘행복한 위반자 현상’은 아

동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긍정적 정서를 귀인하는 반응을 의미한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을 위반한 사람이 긍정적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아동의 규율에 대한 이해와 정서 귀인 능력 간의 불일치를 보여준다(Krettenauer, Malti, & Sokol, 2008). 연구 결과에 따르면 4-6세 아동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보이는데, 이는 아동의 결과 중심적인 사고 때문일 수 있다. 잘못을 하였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만족하여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Keller, Lourenço, Malti, & Saalbach, 2003; Nunner-Winkler & Sodian, 1988). 본 연구에 참가한 5-6세 아동도 아직 도덕적 규칙을 위반한 상황에서 죄책감보다는 원하는 바를 달성한 것(주인공이 맛있는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은 것 등)으로 인한 만족감 등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낄 것이라 예측하는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들은 예의 요구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도 긍정적 정서를 추론하였다.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학령 전기 아동들도 타인의 정서가 바람, 의도, 친사회적 행동 여부 및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이현진, 2009; 원정애, 송현주, 2009; 윤지영, 송현주, 2013).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5-6세 아동이 보인 반응을 살펴보면, 예의 요구 상황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주인공의 친사회적 동기를 파악하여 긍정적 정서를 추론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행동에 수반되는 정서 추론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도덕적 개념에 대한 이해

가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Bandura, 1991; Bussey, 1992, 1999).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예의 요구 상황에서의 참말 및 거짓말 이후의 정서 추론 반응을 살펴볼 때 이 연령대의 아동들이 실제로 예의 요구 상황에서 참말을 하기 보다는 선의의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으나 아직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아동기 선의의 거짓말 표현에 관하여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Popliger, Talwar, & Crossman, 2011; Talwar & Lee, 2002b; Talwar, Murphy, & Lee, 2007; Xu, Bao, Fu, Talwar, & Lee, 2010), 한국에서도 선의의 거짓말 개념 이해에 관련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 혹은 실험 상황에서 아동이 언제부터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 개념 이해와 실제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개념적 이해 및 도덕적 평가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에도 이야기에 포함된 상황, 주인공의 의도, 질문 방식 등을 더 세분화하여 연구를 확장해나간다면 아동기 사회 인지 발달 분야에 더욱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e.g., Broomfield, Robinson, & Robinson, 2002; Xu, Luo, Fu, & Lee, 2009).

향후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과제에서 5-6세보다 더 어린 아동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Bussey(1999)의 연구에서는 4세 아동도 선의의 거짓말을 다른 거짓말보다 비교적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예의 요구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다른 상황에서 사실을 말했다 때보다 더 부정

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4세 아동도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 연구함으로써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 도덕적 평가 및 정서 추론 능력 출현에 관하여 발달적 지식을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권은영, 이현진 (2012). 한국 아동의 거짓말 유형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정서반응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1), 117-133.
- 박영아 (2008). 아동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및 정서 반응의 발달. *한국생활과학회지*, 17(6), 1079-1091.
- 원정애, 송현주 (2009). 타인의 감정, 바람,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한국 아동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4), 57-71.
- 윤지영, 송현주 (2013). 양보 행동 동기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 성인과 학령전기 아동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277-291.
- 이현진 (2009). 한국 아동에서 살펴본 바람, 의도, 정서, 사회적 규칙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 1-18.
- Bandura, 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moral thought and action.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1, 45-103.
- Broomfield, K. A., Robinson, E. J., & Robinson, W. P. (2002). Children's understanding about white lie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 47-65.
- Bussey, K. (1992). Lying and truthfulness: Children's definitions, standards, and evaluative reactions. *Child Development*, 63(1), 129-137.
- Bussey, K. (1999). Children's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 of different types of lies and truths. *Child Development*, 70(6), 1338-1347.
- Grice, H. P. (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Harvard University Press.
- Happé, F. G. (1994). An advanced test of theory of mind: Understanding of story characters' thoughts and feelings by able autistic, mentally handicapped, and normal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4(2), 129-154.
- Heyman, G. D., Sweet, M. A., & Lee, K. (2009). Children's reasoning about lie telling and truth telling in politeness contexts. *Social Development*, 18(3), 728-746.
- Keller, M., Lourenço, O., Malti, T., & Saalbach, H. (2003). The multifaceted phenomenon of 'happy victimizers': A cross cultural comparison of moral emotion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1-18.
- Krettenauer, T., Malti, T., & Sokol, B. W. (2008). The development of moral emotion expectancies and the happy victimizer phenomenon: A critical review of theory and appl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al Science*, 2(3), 221-235.
- Lee, K., & Ross, H. J. (1997). The concept of lying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Testing Sweetser's folkloristic model. *Merrill-Palmer Quarterly*, 43, 255-270.
- Nunner-Winkler, G., & Sodian, B. (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 emotions. *Child Development*, 59(5), 1323-1338.
- Popliger, M., Talwar, V., & Crossman, A. (2011).

- Predictors of children's prosocial lie-telling: Motivation, socialization variables, and moral understand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0(3), 373-392.
- Sweetser, E. (1987). The definition of lie. *Cultural models in language and thought*, 43-66.
- Talwar, V., & Crossman, A. (2011). From little white lies to filthy liars: The evolution of honesty and deception in young children.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ur*, 40, 139-179.
- Talwar, V., & Lee, K. (2002b). Emergence of white-lie telling in children between 3 and 7 years of age. *Merrill-Palmer Quarterly*, 48(2), 160-181.
- Talwar, V., Murphy, S. M., & Lee, K. (2007). White lie-telling in children for politeness purpos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1), 1-11.
- Xu, F., Bao, X., Fu, G., Talwar, V., & Lee, K. (2010). Lying and truth telling in children: From concept to action. *Child Development*, 81(2), 581-596.
- Xu, F., Luo, Y. C., Fu, G., & Lee, K. (2009). Children's and adults' conceptualization and evaluation of lying and truth telling.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8(4), 307-322.

1차원고접수 : 2014.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4. 03. 08.

최종게재결정 : 2014. 03. 10.

## Five- to six-year-old children's understanding of lies and truths in different contexts

Miri Song

Hyun-joo So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5-6-year-old Korean children consider situational factors when comprehending a protagonist's lie- and truth-telling. The participants answered a series of questions after listening to stories in which the protagonist lied or told the truth during a transgression (e.g., stealing a friend's crayon) or a polite interaction (e.g., receiving a disappointing gift). Children more positively evaluated lying in the politeness contexts than in the transgression contexts. They also attributed more positive emotions to the protagonists who told the truth in the transgression contexts than those who told the truth in the politeness context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preschoolers understand that the moral value and emotional consequences of lying and truth-telling can be affected by contextual factors.

*Key words* : antisocial lies, white lies, moral evaluation, emotion inference